

202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5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교회

성경: 살전 1:1 상, 살후 1:1, 요일 1:1-2, 2:23-24, 요이 9

- I.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 살전 1:1 상.
  - A.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것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 B. 이와 같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1. 이것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속하지만, 유기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있다.
    3.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서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생활이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이다.
- II.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축복이다 — 요 1:12-13, 요일 5:11-12, 벧후 1:4.
  - A.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 — 살전 1:1.
  - B. 이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실재와 실행에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고 있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요소이신 아버지와 우리의 형상이신 아들과 우리의 표현이신 그 영을 가짐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비춘다 — 롬 12:2, 고후 3:18.
  - C. 이것은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이다 — 살후 1:1.
- III. 삼일 하나님이 신약의 구조이다.
  - A.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 마 12:28.
  - B.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 마 28:19.
  - C.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 요 14:26.
  - D.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 요 15:26.
  - E.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행 2:33.

- F.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롬 8:11.
- G.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 갈 4:6.
- H.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엡 3:16-17 상.
- I.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 아버지이십니다.” — 엡 4:4-6.
- J.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 히 9:14.
- K.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 벧전 1:2.
- L.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 1:4-5 상.

**IV. 요한의 서신들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계시한다 — 요일 1:1-2, 2:23-24, 3:24, 4:2, 6, 13-14, 5:6, 11-12, 요이 9.**

- A.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근원, 유일한 창시자,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창시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그분에게서 나온다 — 요일 1:2-3, 2:13, 15, 3:1, 4:14, 마 15:13, 롬 11:36, 고전 8:6, 엡 3:14-16.
  - 1.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께서 영원한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생명에 참여하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 요일 1:2-3, 5:11-12.
  - 2. ‘아버지’라는 칭호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 요일 3:1, 벧전 1:3.
- B.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은 모두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시간 안에서 육체 되심을 통해 나타나신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을 의미한다 — 요 1:1, 14.
  - 1. 아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영원하시고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 요일 2:13 상, 14 상.
  - 2.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죄로 가득한 마귀의 행위들을 파멸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일 3:8 하.
  - 3.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 — 요일 4:10.
    - a.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희생 제물이시다 — 요일 2:2.
    - b.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히 9:28).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진정되었다.
  - 4.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셨다 — 요일 4:9.
    - a.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피에 의해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에 의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 엡 1:7, 요일 3:14-15, 요 5:24.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요 1:29, 3:36, 10:10 하.

5.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단이다 — 요일 5:11-12.
  - a.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들과 생명은 하나로서 나누어질 수 없다 — 요 11:25, 14:6, 골 3:4.
  - b.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 요일 5:12.
6.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변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께서 성취하신 화해에 근거하시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변호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신다 — 요일 2:1, 롬 8:34.
- C.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은 성령, 곧 실재의 영이시다 — 요 14:17, 15:26, 16:13.
  1. 그 영은 실재이시다.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의 실재이심을 의미한다 — 요일 5:6.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안다 — 요일 3:24.
- D. 요한일서 4장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계시한다.
  1. 13절에서 “그분의 영에게서 나온 것을 주셨습니다.”(직역)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께서 차고 넘치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차고 넘치시는, 한량없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 빌 1:19, 요 3:34.
  2. 우리의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을 주셨으며, 이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시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
- E.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다 — 요삼 11.
  1.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 욥 42:5, 각주 1.
  2.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 F.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실 때, 그분은 보좌 위에 계시며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분이시다 — 계 4:2-3, 5:6, 요일 3:19-21.
  1. 우리는 우주라는 광대한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안다 — 히 8:10-11.
  2. 신약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신 삼일 하나님, 곧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속부분들 안으로 확산되기를 갈망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다 — 엡 3:14-17 상, 요일 3:19-21.
  3. 신약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상세하며 체험적인 방식으로 안다 — 요일 2:20, 27, 히 10:16.
  4.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체험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